

의·치·한의대 지역출신 30% 선발, 광주·전남 실효성 없다

전남대·조선대·동신대 이미 지역학생 30~50%씩 뽑아

올해부터 지방의 의대·치대·한의대 등은 모집정원의 30% 이상을 해당지역의 고등학교 출신자로 뽑는다. 지방대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조치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은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조선대·동신대 등 지역대학들은 이미 30~50% 이상 지역 학생들을 뽑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방인재 전형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올해 대학입시부터 지방대의 의대·치대·약대·한의대 등에서 지역인재 특별전형 비율을 모집인원의 30% 이상 선발하도록 했다. 또 법학·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은 20%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을 뽑도록 했다.

인재 선발 해당지역의 범위는 호남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광역단위 6개 권역으로 정했다.

이같은 제도 도입에 대해 지역 대학들과 입시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 대학들은 이미 30% 이상을 광주·전남 고교 출신 학생들로 뽑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은 지난해(2014학년도) 모집정원 63명 중 32명(50.8%)을,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은 70명 중 30명(42.9%)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국가와 지방자

특별전형으로 선발했다. 조선대도 의전원은 32%를, 치전원은 40%를 지역 인재로 뽑았다. 동신대 한의대도 모집정원 50명 중 50% 이상이 지역 고교 출신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신대 관계자는 "지난해 지역인재특별전형이 아닌 일반전형으로만 선발했지만 지역 학생은 50% 넘었다"며 "올해 정부의 법 제정 취지를 살려 지역인재전형으로 20%를 추가해 선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기업은 대졸자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또 지방대학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부과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지방대학육성법 시행일은 7월 29일부터 제정·공표된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호남대 여성벤처 거점대학에 선정

호남대학교 창업보육·교육센터(센터장 이동렬)가 '2014년 여성벤처 활성화 사업' 거점대학으로 선정됐다.

(사)한국여성벤처협회에서 주관하는 '2014년 여성벤처 활성화 사업' 거점대학은 창업 아이디어(아이템)를 보유한 벤처창업 희망 여성을 대상으로 벤처창업 특성화 교육 및 선배 CEO 연계형 창업지원을 통해 기술·지식기반 벤처창업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호남대 창업보육·교육센터는 전국 5개 거점대학에 선정돼 호남권의 여성벤처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 사업은 창업 아이디어(아이템)를 보유한 벤처창업 희망 여성을 모집해 벤처카운슬링 및 기초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의 기초를 다진다. 또 우수 아이템은 2단계 여성벤처 창업케어페스티벌을 통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캠프 및 멘토링 초기 사업화 지원을 통한 시제품제작 등의 지원을 한다.

이동렬 창업보육·교육 센터장은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호남대가 호남권의 우수 창업아이디어를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위한 거점대학으로 확실히 기반을 다져 예비창업자의 사업화 성공을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남부대 언어재활사 고시 100% 합격

남부대학교 언어치료첨각학과(학과장 권미지)는 최근 실시한 '제2회 2급 언어재활사 국가고시'에서 응시자 16명 모두가 불어 100%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 국가고시에는 전국에서 3745명이 응시해 3163명이 통과, 전국 평균 합격률은 84.5%이다.

남부대 언어치료첨각학과는 지난 1월 발표한 첨능사 자격시험에서도 전국 평균 44.2%보다 월씬 높은 73.3%의 합격률을 보였다. 언어치료첨각학과는 의사소통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체계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교육은 크게 언어재활과 청각학 분야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특히 대학 내 언어치료센터와 청각연구센터에서 임상실습을 병행, 학생들에게 실무 능력을 기워주고 있다.

언어치료첨각학과 권미지 학과장은 "교과과정을 자격증 취득에 맞추는 학생 특강 및 모의고사, 지도교수의 1:1 상담, 전용 고시실 운영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과기원 과학도서 기증

광주과기원은 과학의 날 맞아 최근 광주 월봉초등학교 등 첨단지구 초등학교 10곳에 1200만원 상당의 과학도서 800여권을 기증했다.

〈광주과기원 제공〉

조선대 항공우주공학과 학생 논문경진대회 준우수·장려상

조선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우주기술융합연구실(지도교수 오현웅) 소속 학부 학생들이 최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항공우주학회 주최 '제2회 학부생 논문경진대회'에서 준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준우수상은 '큐브위성 탑재를 위한 MEMS 기반 고체 추력기의 마이크로 접화기를 이용한 궤도 열 제어'를 발표한 하현우(4년)·강수진(3년)·한성현(4년) 팀이 받았고, 장려상은 '우주 적용을 위한 고효율 태양집광형 전력시스템'

의 실험적 성능 검증'을 발표한 박태웅(3년)·체봉건(2년)·장수은(2년) 팀이 받았다.

우주기술융합연구실은 제1회 학부생 논문경진대회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팀을 배출했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최종 본선에 진출한 7팀 중 두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지난 2013년에 학부 학생 중심으로 출발한 우주기술융합 연구실 소속 10명 팀원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하였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항공우주공학과 학생 논문경진대회 준우수·장려상

전남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우주기술융합연구실(지도교수 오현웅) 소속 학부 학생들이 최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항공우주학회 주최 '제2회 학부생 논문경진대회'에서 준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준우수상은 '큐브위성 탑재를 위한 MEMS 기반 고체 추력기의 마이크로 접화기를 이용한 궤도 열 제어'를 발표한 하현우(4년)·강수진(3년)·한성현(4년) 팀이 받았고, 장려상은 '우주 적용을 위한 고효율 태양집광형 전력시스템'

의 실험적 성능 검증'을 발표한 박태웅(3년)·체봉건(2년)·장수은(2년) 팀이 받았다.

우주기술융합연구실은 제1회 학부생 논문경진대회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팀을 배출했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최종 본선에 진출한 7팀 중 두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지난 2013년에 학부 학생 중심으로 출발한 우주기술융합 연구실 소속 10명 팀원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하였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항공우주공학과 학생 논문경진대회 준우수·장려상

전남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우주기술융합연구실(지도교수 오현웅) 소속 학부 학생들이 최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항공우주학회 주최 '제2회 학부생 논문경진대회'에서 준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준우수상은 '큐브위성 탑재를 위한 MEMS 기반 고체 추력기의 마이크로 접화기를 이용한 궤도 열 제어'를 발표한 하현우(4년)·강수진(3년)·한성현(4년) 팀이 받았고, 장려상은 '우주 적용을 위한 고효율 태양집광형 전력시스템'

의 실험적 성능 검증'을 발표한 박태웅(3년)·체봉건(2년)·장수은(2년) 팀이 받았다.

우주기술융합연구실은 제1회 학부생 논문경진대회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팀을 배출했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최종 본선에 진출한 7팀 중 두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지난 2013년에 학부 학생 중심으로 출발한 우주기술융합 연구실 소속 10명 팀원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하였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항공우주공학과 학생 논문경진대회 준우수·장려상

전남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우주기술융합연구실(지도교수 오현웅) 소속 학부 학생들이 최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항공우주학회 주최 '제2회 학부생 논문경진대회'에서 준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준우수상은 '큐브위성 탑재를 위한 MEMS 기반 고체 추력기의 마이크로 접화기를 이용한 궤도 열 제어'를 발표한 하현우(4년)·강수진(3년)·한성현(4년) 팀이 받았고, 장려상은 '우주 적용을 위한 고효율 태양집광형 전력시스템'

의 실험적 성능 검증'을 발표한 박태웅(3년)·체봉건(2년)·장수은(2년) 팀이 받았다.

우주기술융합연구실은 제1회 학부생 논문경진대회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팀을 배출했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최종 본선에 진출한 7팀 중 두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지난 2013년에 학부 학생 중심으로 출발한 우주기술융합 연구실 소속 10명 팀원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하였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항공우주공학과 학생 논문경진대회 준우수·장려상

전남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우주기술융합연구실(지도교수 오현웅) 소속 학부 학생들이 최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항공우주학회 주최 '제2회 학부생 논문경진대회'에서 준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준우수상은 '큐브위성 탑재를 위한 MEMS 기반 고체 추력기의 마이크로 접화기를 이용한 궤도 열 제어'를 발표한 하현우(4년)·강수진(3년)·한성현(4년) 팀이 받았고, 장려상은 '우주 적용을 위한 고효율 태양집광형 전력시스템'

의 실험적 성능 검증'을 발표한 박태웅(3년)·체봉건(2년)·장수은(2년) 팀이 받았다.

우주기술융합연구실은 제1회 학부생 논문경진대회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팀을 배출했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최종 본선에 진출한 7팀 중 두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지난 2013년에 학부 학생 중심으로 출발한 우주기술융합 연구실 소속 10명 팀원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하였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항공우주공학과 학생 논문경진대회 준우수·장려상

전남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우주기술융합연구실(지도교수 오현웅) 소속 학부 학생들이 최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항공우주학회 주최 '제2회 학부생 논문경진대회'에서 준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준우수상은 '큐브위성 탑재를 위한 MEMS 기반 고체 추력기의 마이크로 접화기를 이용한 궤도 열 제어'를 발표한 하현우(4년)·강수진(3년)·한성현(4년) 팀이 받았고, 장려상은 '우주 적용을 위한 고효율 태양집광형 전력시스템'

의 실험적 성능 검증'을 발표한 박태웅(3년)·체봉건(2년)·장수은(2년) 팀이 받았다.

우주기술융합연구실은 제1회 학부생 논문경진대회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팀을 배출했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최종 본선에 진출한 7팀 중 두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지난 2013년에 학부 학생 중심으로 출발한 우주기술융합 연구실 소속 10명 팀원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하였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항공우주공학과 학생 논문경진대회 준우수·장려상

전남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우주기술융합연구실(지도교수 오현웅) 소속 학부 학생들이 최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항공우주학회 주최 '제2회 학부생 논문경진대회'에서 준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준우수상은 '큐브위성 탑재를 위한 MEMS 기반 고체 추력기의 마이크로 접화기를 이용한 궤도 열 제어'를 발표한 하현우(4년)·강수진(3년)·한성현(4년) 팀이 받았고, 장려상은 '우주 적용을 위한 고효율 태양집광형 전력시스템'

의 실험적 성능 검증'을 발표한 박태웅(3년)·체봉건(2년)·장수은(2년) 팀이 받았다.

우주기술융합연구실은 제1회 학부생 논문경진대회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팀을 배출했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최종 본선에 진출한 7팀 중 두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지난 2013년에 학부 학생 중심으로 출발한 우주기술융합 연구실 소속 10명 팀원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하였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항공우주공학과 학생 논문경진대회 준우수·장려상

전남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우주기술융합연구실(지도교수 오현웅) 소속 학부 학생들이 최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항공우주학회 주최 '제2회 학부생 논문경진대회'에서 준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준우수상은 '큐브위성 탑재를 위한 MEMS 기반 고체 추력기의 마이크로 접화기를 이용한 궤도 열 제어'를 발표한 하현우(4년)·강수진(3년)·한성현(4년) 팀이 받았고, 장려상은 '우주 적용을 위한 고효율 태양집광형 전력시스템'

의 실험적 성능 검증'을 발표한 박태웅(3년)·체봉건(2년)·장수은(2년) 팀이 받았다.

우주기술융합연구실은 제1회 학부생 논문경진대회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팀을 배출했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최종 본선에 진출한 7팀 중 두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지난 2013년에 학부 학생 중심으로 출발한 우주기술융합 연구실 소속 10명 팀원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하였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항공우주공학과 학생 논문경진대회 준우수·장려상

전남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우주기술융합연구실(지도교수 오현웅) 소속 학부 학생들이 최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항공우주학회 주최 '제2회 학부생 논문경진대회'에서 준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